



wa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05년 8월에 개관한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은 일본에서 최초로 전시 성폭력을 주로 다루는 자료관으로서, 기억과 활동의 거점입니다.

wam은 일본군 성 노예 제도를 재판한 ‘여성국제전범법정’을 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힘쓴 고(故) 마쓰이 야요리 씨의 유지(遺志)를 이어받아 ① 젠더정의의 시점에서 전시 성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② 피해와 동시에 가해의 책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③ 평화와 비폭력 활동의 거점이 될 것을 목표로 하는 ④ 민중 운동으로써, ⑤ 국경을 넘은 연대(連帶) 활동을 유지한다는 5개의 기본 이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wam에서는 특별전을 시작으로 각종 이벤트의 개최 및 조사, 연대 활동을 통하여, 많은 분들께서 피해 여성 한 명 한 명의 존재와 그분들의 인생을 접하고, 전시 성폭력의 실태와 가해 책임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피해자들의 정의가 실현되어,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함께 행동으로 옮겨가고 싶습니다.

2007년에는 wam의 활동에 팍스 크리스티(Pax Christi) 평화상이 수여되었습니다. 국제 사회, 그리고 일본의 지방 의회에서도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부정을 바로잡고, 폭력과 차별이 없는 미래 평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저희들은 여러분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이용 안내

개관 시간 : 수~일요일 13:00~18:00

휴관일 : 월, 화, 공휴일, 연말연시

※ 공휴일, 개관 시간 외의 단체 방문은 사전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전시물 교체 기간은 휴관합니다.

관람료 : 18세 이상 500엔

18세 미만 300엔

초등학생 이하 무료

※ 장애우와 동반하신 분은 무료입니다.

교통 안내

- JR 야마노테선, 세이부신주쿠선 다카다노바비역 와세다 출구에서 도보 20분
- 다카다노바비역 와세다 출구에서 ‘학02 외대정문 방면’ 버스 10분 ‘니시와세다’ 하차 도보 2분
- 지하철 도자이선 와세다역 3b번 출구,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 지하철 후쿠토신선 니시와세다역 1번 출구,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wam

アクティブ・ミュージアム

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

women's active museum
on war and peace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은
NPO법인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인권 기금의 사업입니다.

우) 169-0051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와세다 2-3-18 AVACO 빌딩 2층
TEL : 03-3202-4633 FAX : 03-3202-4634
E-mail : wam@wam-peace.org URL : www.wam-peace.org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평화롭고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전시 성폭력의 피해 및 가해 사례를 모은
일본 최초의 자료관입니다



wam

액티브 뮤지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am은 전시 성폭력의 피해와 가해 사례를 기록하고, 배우고, 대화하고 행동을 일으키는 기억과 활동의 거점입니다.



●침묵을 깐 여성들
아시아 각국의 일본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초상화가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wam에서 이름, 얼굴 및 피해 사례를 공개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신 150여 명의 여성들입니다.



●특별전 코너
연 1~2회, 주제를 선정하여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상설 전시 코너에서는 여성국제전법정의 전시판 및 아시아 전역의 위안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안소 지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1회 '여성국제전법정의 모든 것' 전 (2005년 8월~11월)
70여 장의 전시판을 통해 여성국제전법정을 알기 쉽게 설명함.

제2회 '마쓰이 야요리의 모든 업적' 전 (2005년 12월~2006년 4월)
'법정'의 발안자인 마쓰이 야요리 씨의 신문 기사와 여성운동가로서의 모든 업적.

제3회 '내버려진 조선인 '위안부' 전 (2006년 4월~11월)

아시아 각지에 내버려진 조선인 '위안부'의 피해 실태와 식민지 지배의 구조.

제4회 '동티모르 — 전쟁에서 살아남은 여성들
— 일본군과 인도네시아 지배 아래에서' 전 (2006년 12월~2007년 5월)

일본군 점령하와 종전 후 인도네시아 군정 하에서의 성폭력을 분명히 함.

제5회 '중학생을 위한 '위안부' 전 (2007년 6월~2008년 5월)

'위안부' 제도란 무엇인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실태와 아시아 전역의 피해자 증언을 전시.

제6회 '어느 날, 일본군이 쳐들어왔다 — 중국·전장에서의 강간과 위안소' 전 (2008년 6월~2009년 6월)

15년 간의 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한 피해가 심각했던 산시성 우(盂)현, 난징, 하이난 섬의 피해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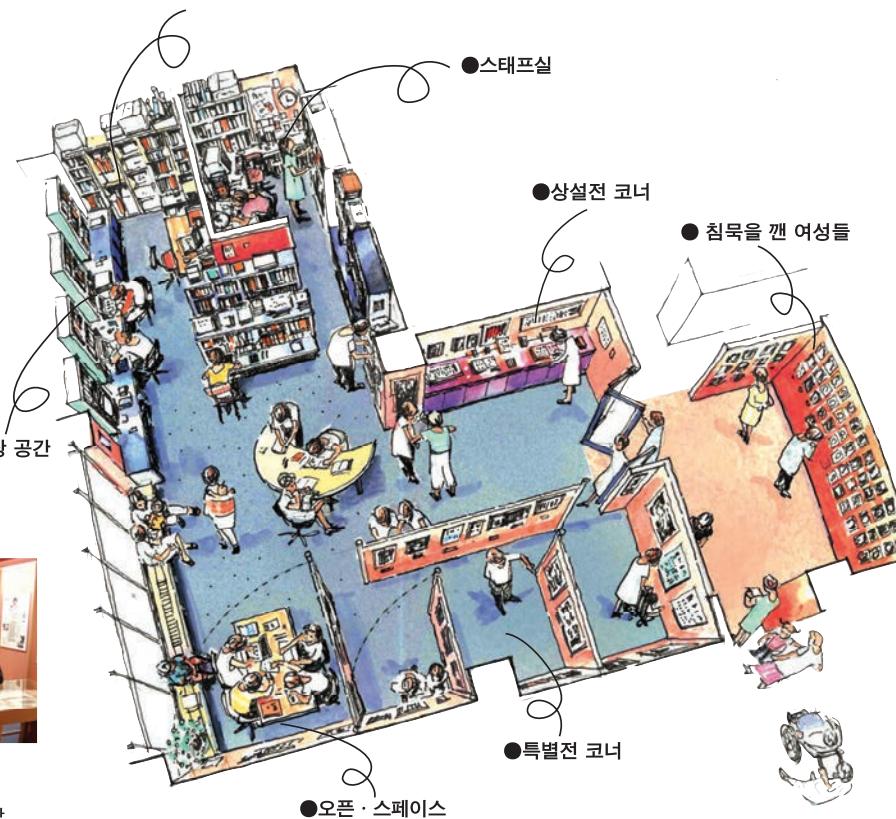
제7회 '증언과 침묵 — 가해 경험을 고백한 전(前) 일본군인들' 전 (2009년 7월~2010년 6월)

압도적 다수가 침묵하는 가운데, 소수의 전(前) 일본군인들은 왜 가해 증언을 하게 되었을까.

제8회 '여성국제전법정으로부터 10년 여성들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꾼다' 전 (2010년 7월~2011년 6월)

전쟁과 폭력이 만연하는 21세기. 그럼에도 '법정'을 실현시킨 힘과 예지는 끊임없이 이어져 간다.

●자료 열람 코너



●자료 열람 코너

'위안부' 재판 및 여성국제전법정의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곳은, 일본에서는 이곳뿐입니다. '위안부' 관련 서적, 잡지, 논문, 군(軍) 관련 자료를 시작으로, 지원 단체가 발행한 책자, NHK 방송 조작 재판에 대한 기록, 마쓰이 야요리 씨의 모든 기사를 수록한 파일 등도 두루 갖추어져 있습니다. wam의 세미나와 심포지엄의 기록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공간

wam에서는 전시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및 심포지엄

특별전과 같은 주제로 연속 세미나 및 심포지엄. wam de video (영상 상영과 제작자와의 대화), 각국의 활동가에 의한 '현대의 성폭력' 세미나, 그리고 피해 여성이나 전(前) 일본군인의 증언을 듣는 모임도 열고 있습니다.



●조사 및 출판

특별전 전시판은 모두 책자로 간행되며 'wam 소식지'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움직임을 전합니다. 또 '일본군 위안소 지도'의 추가 및 개선, '위안부' 정보 핫라인의 개설, 피해 여성과 전(前) 일본군인의 증언 인터뷰 등의 조사도 실시합니다. 키워드로 wam 소장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관내 데이터베이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대 행동

피해 여성들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일본 사회를 바꿔 나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지원 단체와 연대하여 다양한 운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군사 기지나 무력 분쟁 하에서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연대 활동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wam은 국가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자립하여 운영하는 민중의 자료관입니다. 꼭 회원이 되어 도와 주십시오!

벗 모임 회원: 연 3,000엔

특전: 행사 안내, 소식지 발송, 메일링 서비스 가입

유지(維持) 회원: 연 10,000엔 (할부 가능)

특전: 벗 모임 회원 특전 및 관람 무료
세미나, 출판물 등의 할인

건설 모금: 기획전의 성과를 한 자리에 전시하여 자료를 충분히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가까운 미래에 넓은 장소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회비·기부금을 보내실 곳

은행 계좌 : 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 Ltd.

(SWIFT Code: BOTKJPJT)

Shibuya Branch 135-3345859

Women's Fund for Peace and Human Rights

*Paypal 계좌도 개설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